#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

## (이사야 7:1~25)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임마누엘 징표 사용의 오리지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의 복음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슬로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비행기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10시간 동안 함께 있지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옆에 있었을 뿐이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징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징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 징표 사용에 대한 오리지널 사용설명서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수리아라고도 불렸던 요단 동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남 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북쪽에서 진격한 베가와 동쪽으로부터 진격해온 르신에 의해 중간에 놓인 성읍들이 점령당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함락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남 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이자 풍전등화인 위기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위기를 의식해야 임마누엘의 징표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사용설명서가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 배경은 절체절명 풍전등화 위기상황입니다.
4절을 보면 벌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굳은 믿음'에 대해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발생하는 맥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굳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비행기에 탄 사람을 예로 든 것처럼 단순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짝사랑을 하시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함께 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사야는 굳은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곧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사실에 마음을 주면 현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에 동일하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가려냅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 사실이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취업을 걱정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옆집에서는 결혼문제로 골치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문제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함께 함이란 마음을 준 사실이 갖는 현실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주는 것이 함께 함입니다.

굳은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남 유다가 처한 사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삼키기 위해 진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실 중에서 어느 것을 현실로 선택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 유다와 아무리 함께 하시려고 해도, 남 유다가 첫째 사실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유다의 마음은 베가와 르신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 중에 현실로 채택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즉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사업 혹은 자녀 문제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굳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믿음을 '크레도(credo)'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크레도는 곧 '나의 심장을 꺼내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믿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여러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해서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 유다에게는 베가와 르신이라는 두 왕과 하나님 중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적들은 남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며 사기가 충천하여 이 두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친다면 예루살렘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옆에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

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바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에서 마음으로 함께 할 사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굳은 믿음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구하라고 제안하지만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는 얼핏 믿음의 표현으로 보이는 이 말은 결코 좋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을 해석해보면 '이사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징표나 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지금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막강한 연합군이 예루살렘 코앞에 와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지.' 라고 한 셈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결국 아하스 왕은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끌어들였던 앗수르에 의해 남 유다가 유린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히스기야 왕 14년과 므낫세 왕 때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아하스 왕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와 하나님이 계시는 상황이라면 돈 문제라는 사실을 현실로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돈 문제로 고민하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건강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베가 왕과 르신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려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왜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느냐고 하면서 아하스 왕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베가 왕과 르신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앗수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앗수르 왕은 해결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베가 왕과 르신 왕은 문제 발생단계에서의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근본 의미는, 일단 예루살렘을 침범하려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어야만 했는데 앗수르에게 요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두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에서 어느 사실을 더 우선적 현실로 선택할 것이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 왕이 쳐들어온다는 사실보다도 더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두 왕들에 대해서 행하심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거리낌 없이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채택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선택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버려지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멋대로 채택한 사실을 현실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내 몸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암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암이 발생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이고 굳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징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적 선택에서 불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두 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에서,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불리한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며 만져지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왕의 살기등등하고 사기충천한 군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남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처럼 세상의 문제들은 육체를 통해 생생하게 사실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육체를 통해 접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쉽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적 선택을 받으심에 불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더는 선택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영광스러운 보좌가 휘황찬란하게 보이면, 그 하나님이 자기편이 아닌 적군들은 벌벌 떨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불리함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징조를 나타내시기로 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이 여과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강렬한 사건과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의 대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사실들 중에서 현실로 삼을 대상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주는 압도적 생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이라는 선택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굳게 믿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여기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체감의 문제를 아시기에 예수님이라는 징조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속절없이 거침없이 주저 없이 체감되는 삶의 문제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제공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하기에는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사실들이 너무 강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실에 먹혀버린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에 참여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렬한 사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첫 번째 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 사용의 오리지널 설명서입니다.
두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왔고 이제 한 숨에 삼키려고 하는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 것임을 알기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징조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징조이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예수님을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실들을 현실로 삼으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도록 유지해나간다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연기 나는 두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임마누엘의 징조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절체절명의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